

미군 '군법사 승가'에 서산대사 '격문' 실어

해외불교칼럼

다음은 앞서 말한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 승가>에 영역으로 실린 서산대사 휴정의 조선팔도승병 총궐기 격문이다. 당시 73세이시던 거룩하신 큰스님의 면발치에 흐르듯 감히 옮겨 적었다.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약무도한 적도(賊徒)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합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독기(毒氣)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三京)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룬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바다의 악귀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랴? 살기가 서린 저 악귀들은 독사 급수와 다를 바 없도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치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얻어 받지 아니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의(義)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바, 또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요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원광법사께서 임전무퇴(臨戰無退)라 이르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함은 불법(佛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 온 전통이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 있소. 목숨을 걸고 우리 조국과 백성을 지키는 일은 단군의 피가 혈관에 흐르는 한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이 땅의 나무와 풀마저 일어나 싸워야 할 터, 하늘며 붉은 피를 지닌 이 땅의 백성이야 새삼 무슨 말을 하리오? 또한 세상을 구하는 제세(濟世)가 바로 불법(佛法)이 아니리까? 백성들이 적도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조국을 붉게 적시오. 조국이 사라지고 백성이 괴로워할진대, 그대들이 살아남는 바가 곧 조국과 백성에 대한 배신(背信)이 아니리까?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나이가 들고 쇠약한 승려는 사람을 지키며 구국제민(救國濟民)을 기원하게 하시오! 몸이성한 그대들을 무기를 들어 적도를 물리치고 조국을 구하시오! 모든 보살의 가피력으로 무장하시오! 적도를 쓰러뜨릴 보검(寶劍)을 손아귀에 움켜쥐

시오! 팔부신장(八部神將)의 변복이는 천동번개를 후려치며 나아가시오! 참변에 울부짖는 백성들이 분하고 원통하오. 촌각(寸刻)도 머뭇거리길 수 없소. 지체 없이 일어나 불구대천의 원수를 토벌 격멸하시오!

조선의 승병들이여! 조정대신들은 당쟁 속을 헤매고 군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도주하니 이 아니 슬프오? 또한 외국의 세력을 불러들여 살아날 길을 꾀한다 하니, 우리 민족의 치욕이 아니리까? 이제 우리 승병만이 조국을 구하고 백성을 살릴 수 있소. 그대들이 낯설어 수행 정진하는바가 생사를 초월하자 함이오, 또한 그대들엔 거둬야 할 식솔이 없으니 돌아볼 바 무엇이오? 모든 불보살(佛菩薩)이 그대들의 나아갈 길을 보살피고 거들지니, 분명히 일어서시오! 용맹의연하게 전장으로 나아가 적도를 물리치고 조국의 창검포화가 두리울 바 무엇이오? 전투가 없이는 승리도 없소.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소.

조선팔도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순간의 범용사로 집결하시오! 나 휴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오. 우리 일치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용약 진군합시다!

이 격문을 읽고 들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의 통곡을 하지 않은 승병이 없었다 한다.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 승가>는 이 격문의 작성일자를 1992년 6월15일로 환산하여 게재했다. 그로부터 400여년 후인 2008년 1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례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당선자는 서산대사의 사자후(獅子吼)를 인용한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는 국가지도자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또 그 자리에서 그는 "하심(下心)을 강조하고 '상생(相生)과 화합(化生)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화두'라 밝힌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의심이 없는 천명(天明)이다. 그런데 언행일치(言行一致)란 때로는 '참 나'의 본디 울골은 뜻과 달리 힘겨워하기도 한다. 왜인가? 나는 나와 맺어진 일체중생(一切衆生)과 삼라만상(森羅萬象), 곧 끊고 저버릴 수 없는 온갖 '인연'과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서 '참 나'를 놓치지 않는 바가 그토록 수고로운 가시밭길 고행이리라. (제숙)

성휴스님

참조 :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Chaps' Dharma Talk), People Mattered in Korea: Samyeong-daesa,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드 불심 1

불교수행 위해 영화도 중단

지난해 4월 미국의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와이즈'는 영국 출신의 할리우드 스타인 올랜드 불심이 당분간 영화계를 떠난다는 보도로 그의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자신이 밝힌 이유다.

"지금 나는 마치 길길이 날뛰는 목마에 올라탄 듯하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잠시 영화를 거두고 불교수행에 더욱 정진하려 한다." 대히트 영화시리즈인 '반지의 제왕'과 '카리

숙한 인사들이 불문에 들어서거나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한다. 그들이 찾는 건 과연 무엇일까?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미국에서 불교가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컬럼비아,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MIT, 버클리, 스탠포드, 뉴욕주립대학 등의 석학과 학생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불교가 미국의 최고 지식인 서클에서 바르고 곧은 '눈뜬 믿음'으로 완벽히 뿌리를 내렸음을 의미한다. 눈



올랜드 불심

“불교는 내 삶 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해” 서구 지식 사회에 ‘눈 뜬 믿음’으로 자리잡아

브 해의 해석', 그리고 대작 '트로이'와 '킹덤 오브 헤븐' 등으로 인기절정에 오른 그는 '미러'지와 인터뷰에선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이들은 불교가 나무 그늘 아래서 배꼽 언저리에 두 손을 모으고 있을 때부터 불교를 가슴에 껴안고 살아온 나는 불교를 안다. 불교는 나의 삶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또 나의 삶이 어찌 되어가는지를 늘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새로운 에너지는 보다 정갈하고 관대한 품격을 지닌 '나'를 이루게 한다." 미리 지는 '제발 나를 유명인의 대열에서 빼주세요!'란 자못 충격적인 타이틀로 그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지금 나는 전화를 포함한 대인관계 등 모든 일에서 잠시 멀리 떠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다." 그 기사는 올랜드 불심의 '당분간 휴식'이 꽤 길어질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불교가 서구사회에 한 방울의 다름의 이슬로 떨어진 이래, 한 가지 의문이 내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가에 가정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인격이든 갖출 것 다 갖춘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이 그처럼 진지하게 파고드는가?' 이는 불교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통상적 호기심이나 의구심일 것이다. 어떻게 그 의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사회를 국립건강보험국의 의료혜택항목 중 하나다. 출처: IANS

뜬 믿음은 '눈감고 끌려 다니는 믿음'에 익숙한 서구인들에겐 일대 충격이자 모험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유럽전역의 대학가까지 퍼져간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종합에 앉아있는 것만 잘못 알고 있다. 18살 때부터 불교를 가슴에 껴안고 살아온 나는 불교를 안다. 불교는 나의 삶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또 나의 삶이 어찌 되어가는지를 늘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새로운 에너지는 보다 정갈하고 관대한 품격을 지닌 '나'를 이루게 한다." 미리 지는 '제발 나를 유명인의 대열에서 빼주세요!'란 자못 충격적인 타이틀로 그의 현재 심경을 전했다. "지금 나는 전화를 포함한 대인관계 등 모든 일에서 잠시 멀리 떠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다." 그 기사는 올랜드 불심의 '당분간 휴식'이 꽤 길어질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불교 심리요법으로 안정

영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



9월 3일자 '빅뉴스'는 약물중독으로 재활동원인 양, 우울증, 거식증 등 정서불안장애를 겪어온 영국의 톱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사진)가 불교적 심리요법으로 안정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티나 터너 등 음악계 인사들의 영향으로 최근 불문에 들어섰다. 한편, 영국의 BBC라디오는 연중 불교명상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적 심리치료는 국립건강보험국의 의료혜택항목 중 하나다. 출처: IANS

“Oh, my God! Your devout dog...”

아침 독실하신 명명님께선...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A farmer had lived only with a dog for a long time. When the dog died, he went to the church. "My dog is dead. Could you arrange a funeral service for the poor creature?" The man there was pretty cold. "I wish I could, but our church doesn't do it for animal." But he gave him a kind advice. "There's a pagan church or joss house (American Buddhist temple dubbed earlier) up the hill. Maybe they'll do something for their fellow animal." The farmer was so happy. "Oh, thank you! By the way, do you think \$50,000 is enough to donate for the service?" He suddenly grasped the farmer's hands in tears. "Oh, my God! Your devout dog was neither pagan nor heretic! Why didn't you tell me? I almost forgot!" 어느 농부가 오랫동안 단둘이 살던 개가 죽

자 교회를 찾았다. "저, 우리 명명이가 죽었는데요. 여기서 그 불쌍한 녀석의 장례식 좀 해주실 수 없나요?" 그곳 사람이 툭 땀했다. "뭐, 그리고야 싶죠, 근데 우리 교회에선 짐승 장례식은 안 해요." 그러곤 친절하게 조언해줬다. "저기 언덕에 이단교회인지 분향소(미국불교사찰의 초기축성)인지 하나 있어요. 임튼 같은 짐승들끼리니까 뭔가 해줄 테죠." 농부는 참 기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명명이 장례식의 대가로 제가 거가다 5만 달러를 기부하면 혹시 안 부족할까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농부의 두 손을 와락 붙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침! 그 독실하신 명명님께선 이단이나 이교도가 아니셨죠? 에이, 왜 진짜 그 말씀을 안 하셨나요? 제가 깜빡할 뻔 했잖아요?" 변안: 성휴스님 그림: 이태수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 (07.9.30) 방영 / MBC통일전망대 (06.11.22) 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된다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뚝가게건물 205호 ◇지대품: 파워링, 골반사랑101, 척추사랑(신선대)